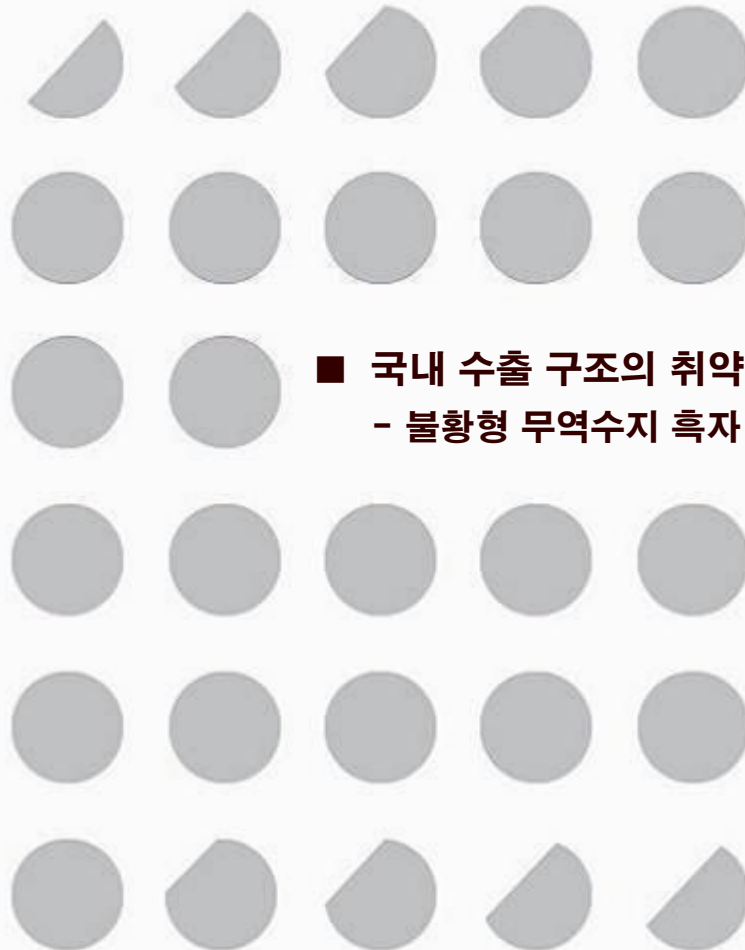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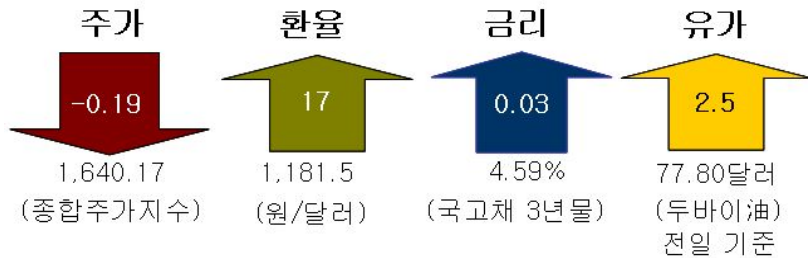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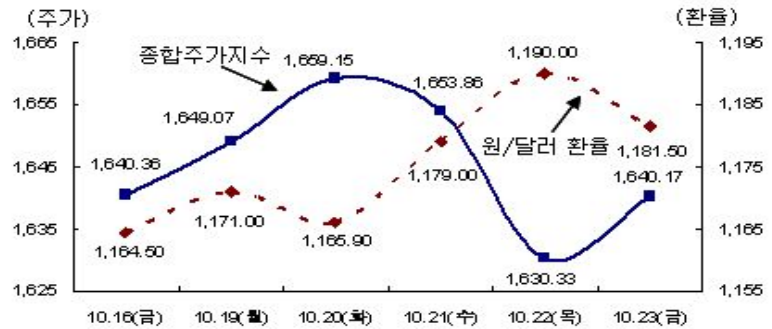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과 극복 과제
-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방안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16~10.2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과 극복 과제	1
주간 경제 동향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민 정 연구 위원 (3669-4457,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과 극복 과제

-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방안

■ 수출 회복 미흡

최근 수출증가율 감소를 능가하는 수입증가율 감소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빠른 수출 회복에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가 시급하다.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출 증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

첫째, 경기 위축 리스크 분산 효과 미약 : 소수의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경기 위축이나 특정 업종의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출 감소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미약하다. 수출 주력 상품 상위 5개 품목의 전체 총수출품에 대한 비중이 한국은 41.5%로 미국의 21.1%, 중국의 26.9%, 일본의 33.7%, 독일의 22.4%에 비교해 매우 높다. 또한 수출품별로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출 집중도지수가 한국이 2007년 15.6로 일본 14.7, 중국 11.0, 독일 8.9, 미국 7.6에 비해 높다. 수출 집중도지수가 높다는 것은 경기 위축 시 수출 감소 충격의 분산 효과가 미약함을 의미한다.

둘째, 對중국 편중 심화 :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2008년 21.7%로 중국의 세계 GDP 비중 11.4%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국내 수출이 중국에 대해 그만큼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부품 소재의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하여 대중 수출 비중 편중심화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은 2008년 20.7%인데 비하여 한국의 총수출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12.3%로 하락하였다. EU 또한 세계 GDP 비중은 2008년 22.1%인데 비하여 한국의 총수출 중 EU로 수출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13.8%로 하락하였다.

셋째, 주요시장에서의 점유율 축소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즉, 이들 주요국들의 총 수입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수출품의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08년 2.3%로 EU시장에서는 2006년 1.2%에서 2008년 현재 1.0%로 하락하였다. 일본시장에서는 2004년 4.8%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2008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은 2005년 11.6%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8년 9.9%로 하락하였다.

넷째, 수출 주력품의 추세적인 경쟁력 하락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가 지속 하락하고 있다. 첫째, 한국 주요 수출품인 ICT 제품의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하락하여 2008년 1.66인 반면에 중국은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2003년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8년 현재 2.74를 기록하였다. 둘째, 주요 수출품인 철강제품은 최고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 한국철강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3.01로 일본 2.07, 중국 0.31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나 2008년 현재 한국은 2.45로 일본 2.15, 중국

1.62와의 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져 한국철강의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 반도체 역시 여전히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995년 최고점 3.97에서 2008년에 1.97로 하락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넷째, 한국 자동차 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200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8년 1.84를 기록한 반면 일본의 비교우위지수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3.65로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다섯째, 세계 수출 상품시장 1위 품목 감소 : 첫째,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수가 감소하고 주요국과 비교해서 1위 품목수가 매우 적음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의 1위 품목 수는 2006년 58개로 1999년의 91개에 비해 33개나 감소했다. 반면에 중국의 2005년 세계 1위 품목수는 958개로 가장 높았고 독일 815개, 미국 678개, 일본 318개로 이들 국가의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수는 한국에 비하여 현저히 많다.

여섯째, 고기술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저조 : 우주항공, 통신장비, 사무기계 및 컴퓨터, 제약업, 과학기구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5%대에 정체되어 있다.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에 대한 상품개발의 저조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2000년 이후에 급등하여 20%에 근접한 상태다.

일곱째, 수입 의존적 수출품 생산 구조 심화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중간재 및 관련주요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음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의 수입유발계수 증가의 영향으로 수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1995년 0.69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0.6으로 하락하여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개선 과제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 개선을 통해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방안은 **첫째**, 주력 수출산업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융합녹색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기존산업의 친환경화를 통해 미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신상품 개발과 기후변화협약으로 환경 및 기술규제의 수출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저탄소 배출 관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 신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수출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인도, 중동, 남미 등의 고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신흥 시장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들 신흥국으로 CDM 수출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수출산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특히 광기술 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 및 친환경 핵심부품소재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 개선과 함께 친환경 소재·부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2010년 성공적인 G-20 회의 개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과 극복 과제 >
 -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방안

수출회복 미흡

- 최근 수출증가율 감소를 능가하는 수입증가율 감소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지속
- 국내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빠른 수출 회복에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가 시급
-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수출 증가 방안을 도출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

- 소수 수출 주력상품 비중과 수출 집중도지수가 높아 경기 위축 리스크 분산 효과 미약
- 대중국 수출 편중 심화
-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점유율 축소
- 수출 주력 품목인 ICT, 철강, 반도체, 자동차 분야의 비교우위지수 하락 추세
- 세계 수출 상품시장 1위 품목 감소
- 고부가가치 산업인 고기술 제조 분야의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 개발 저조
- 수입 의존적 수출품 생산 구조 심화

개선 과제

- 기존산업의 친환경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한국 수출주력 품목 산업과 신기술 융합 상품 개발
 -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 주력 수출산업 중심으로 녹색기술 상품 개발
- 성장잠재력이 있는 품목 개발과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신상품 개발
- 인도, 중동 등의 고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신흥 시장으로 수출지역의 다변화 노력 강화
-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산화 비율 증대
- 성공적인 G-20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가 위상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I. 수출 회복 미흡

○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

-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흑자가 생기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은 약 21% 정도 감소하였지만 수입은 약 33% 내외로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는 320.7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감소율이 1월 34.5%로 급감하였으나 6월 12.5%로 둔화되어 수출이 회복 되는 듯 했지만 그 이후 다시 수출 감소율이 20%대로 악화됨으로서 수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남
 -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나 성장의 내용은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존재

○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시급) 향후 본격적 경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가 시급함

-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를 위해서는 빠른 수출회복과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
 -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수출 증가의 방안을 도출

< 월별 무역수지 추이와 수출입 증가율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상수지	8.6	-16.4	35.6	66.5	42.5	35.0	54.3	43.6	20.4	--
무역수지	5.4	-37.8	28.2	40.1	55.9	47.9	72.0	43.7	17.0	53.7
수출증가율	-17.9	-34.5	-18.5	-22.5	-19.9	-28.6	-12.5	-21.9	-20.9	-6.6
수입증가율	-21.6	-31.4	-30.8	-35.7	-35.3	-39.9	-32.8	-35.7	-32.6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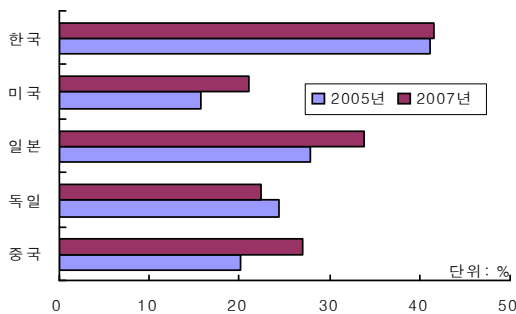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II.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

○ (경기 위축 리스크 분산 효과 미약) 소수 수출 주력 상품의 비중과 수출 집중도지수가 높음에 따라 경기 위축 리스크 분산 효과 미약

- 수출 주력 품목이 적어 수출 품목 다양성이 부족하고 수출 집중도 편중이 심해 수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의 위험 분산 효과가 결여
- 수출 주력 상품 상위 5개 품목의 전체 총수출품에 대한 비중이 한국은 41.5%로 미국의 21.1%, 중국의 26.9%, 일본의 33.7%, 독일의 22.4%에 비해 매우 높음에 따라 소수 수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세계 경기 위축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 할 경우 소수 수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
- 또한 수출 주력품의 집중도가 한국이 2007년 현재 15.6로 일본 14.7, 중국 11.0, 독일 8.9, 미국 7.6에 비해 높으며 수출 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출품 규모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¹⁾하며 수출품의 편중성이 높음을 나타냄

<수출 주력 품목²⁾ 비중>



자료: World Bank.

<수출 집중도지수³⁾>

	1998	2000	2002	2004	2007
한국	14.9	15.8	14.9	16.3	15.6
중국	7.4	7.8	8.8	10.9	11.0
미국	8.8	9.1	8.4	7.6	7.6
독일	9.4	9.6	10.4	9.7	8.9
일본	13.5	13.6	14.9	13.7	14.7

자료 : World Bank.

- 1) 총 수출에 대한 각각 수출품의 비중이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 “수출 집중도” 수치가 낮고 수출 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출품의 비중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편중되어 있어서 글로벌 충격으로 인한 수요감소의 위험을 분산 시킬 수 없고 이에 따라 파급효과가 더 큼.
- 2) Share of Top 5 export로 UN COMTRADE SITC 4-digit을 이용하여 수출주력상품 상위 5개 품목의 전체 수출품에 대한 비중으로 국가 총수출이 수출주력상품 상위 5개 품목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임.
- 3) 수출편중성을 나타내는 수출 집중도(Export Concentration Index)는 Herfindahl-Hirschmann Index라고도 하며 이 값이 높을수록 총수출에 대한 각각의 수출품목의 비중이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지 않고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World Bank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H_j = 100 * \left[\frac{\sqrt{\sum_i \left(\frac{X_{ij}}{X_j}\right)^2} - \sqrt{\frac{1}{n}}}{1 - \sqrt{\frac{1}{n}}} \right]$$

주 : X_{ij} 는 국가 j의 상품 i의 수출량, X_j 는 국가 j의 총 수출량, n은 총 상품 수를 나타내고 SITC 3 digit을 이용(수출상품이 \$100,000 이하이거나 수출품의 비중이 총 수출의 0.3% 이하로 수출규모가 미미한 수출 품목은 제외).

○ (대중국 편중 심화) 세계 총 GDP 중 각 지역이 차지하는 GDP 비중과 한국 총수출 중 각 지역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한국 수출의 대중국 편중이 심화됨

- 한국 총수출 중 미국, 일본, EU 시장으로 수출하는 비중 감소하였으나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급증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의 편중성이 심화됨
-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2008년 21.7%로 중국의 세계 GDP 비중 11.4% 대비 한국 수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 편중이 심화됨
-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부품 소재의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심각한 파급효과 초래함
- 반면, 세계 총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23.7%에서 2008년 20.7%로 3%p 감소한 반면 한국의 총수출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1999년 20.5%에서 2008년 12.3%로 8.2%p 감소
- 또한, 세계 총 GDP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2.1%인 반면에 한국의 총수출 중 EU로 수출하는 비중은 2005년 15.4%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13.8%로 감소
- 한국의 총수출 중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2008년 6.7%로 2001년 10.9%와 비교해 감소하였으나 세계 총 GDP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함

<지역별 수출 비중과 세계 GDP 비중>

	미국		EU		일본		중국		중동	
	수출 비중	GDP 비중	수출 비중	GDP 비중	수출 비중	GDP 비중	수출 비중	GDP 비중	수출 비중	GDP 비중
1999	20.5	23.7	14.1	25.4	11.0	7.8	9.5	6.9	4.5	3.5
2001	20.8	23.2	13.1	25.2	10.9	7.5	12.1	7.6	4.7	3.5
2003	17.7	22.7	12.9	24.4	8.9	7.2	18.1	8.6	4.4	3.7
2005	14.5	22.2	15.4	23.4	8.5	6.9	21.8	9.5	4.3	3.7
2007	12.3	21.2	15.1	22.6	7.1	6.6	22.1	10.8	5.3	3.8
2008	12.3	20.7	13.8	22.1	6.7	6.4	21.7	11.4	6.3	3.9

자료 : 무역협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

주 : GDP 비중은 PPP(purchasing-power-parity)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 총 GDP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주요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추세) 각 나라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제품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각 주요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점유율이 하락함을 의미

- 한국 수출품의 주요 시장점유율⁴⁾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제품의 비중이 감소됨에 따라 주요 수출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점유율 감소
 - 미국시장에서 한국수출품의 점유율은 2000년 이후 하락추세를 유지하며 2008년 2.3%를 기록
 - EU시장에서 한국수출품의 점유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으며 2006년 1.21%를 나타냈으나 2008년 현재 0.98%로 하락
 -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04년 4.84%를 기록하며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2008년 3.87%를 기록
 - 한국 수출 점유율은 중국에서 최고 높게 나타나고 2005년 11.64%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하여 2008년 9.91%로 하락함

<주요시장에서 점유율 추이>

년도	중국	EU	일본	미국
2000	10.31	1.07	5.39	3.32
2001	9.60	0.91	4.92	3.09
2002	9.68	0.95	4.59	3.07
2003	10.45	1.01	4.67	2.94
2004	11.09	1.13	4.84	3.13
2005	11.64	1.18	4.73	2.62
2006	11.34	1.21	4.72	2.48
2007	10.85	1.09	4.39	2.45
2008	9.91	0.98	3.87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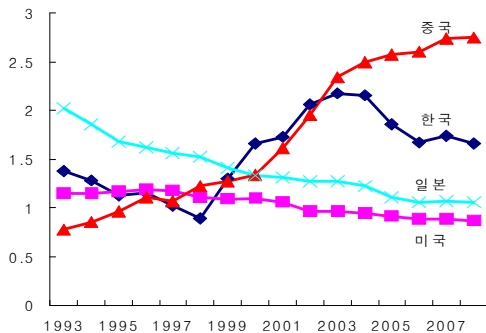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4) 각 나라의 총 수입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총 수입량으로 각 수입국에서 한국 수출품의 점유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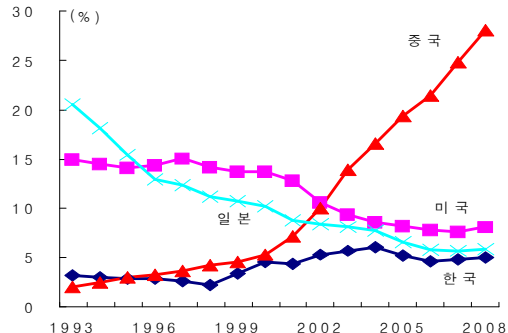
○ (추세적인 수출 경쟁력 하락)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이 최근 하락 추세

- 한국 주요 수출품인 ICT⁵⁾ 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⁶⁾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세계 시장 수출 경쟁력⁷⁾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ICT제품에 대해 비교우위가 급증 추세이었으나 최근 비교우위가 점차 감소하여 2003년 2.17에 비해 2008년 1.66로 하락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한국 ICT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중국은 ICT 제품이 1996년에 1.10로 비교우위를 보인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74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중국 ICT 제품의 수출 경쟁력 급증
- 특히 미국은 ICT분야에 대해 2002년 이전에는 비교우위를 가졌으나 2002년 비교우위지수가 0.96로 하락하여 비교우위를 상실하여 최근까지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ICT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한국은 5.01%로 정체된 반면에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급증하여 2008년 28.10%기록

<ICT제품의 현시비교우위>



<ICT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자료 : UN COMTRADE (SICT revisio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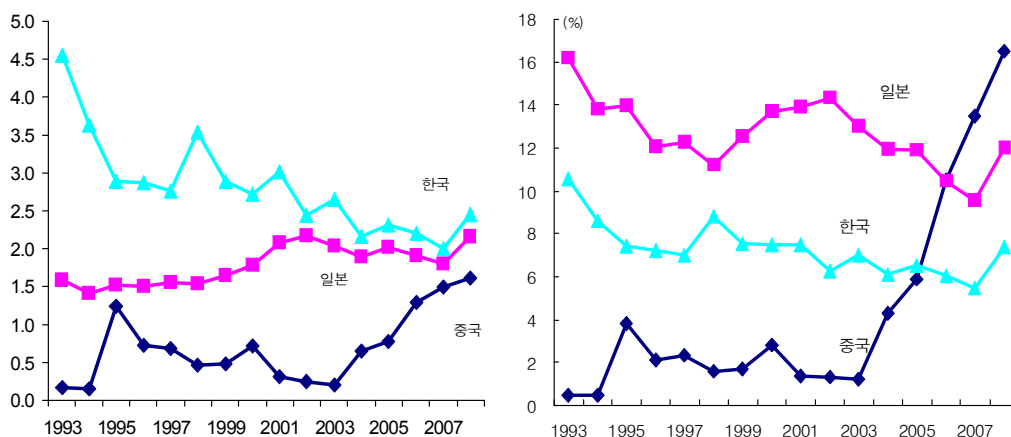
- 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로 Asian Development Bank의 정의에 따라 SITC revision3의 75+76+772의 품목을 포함하며 75는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76은 통신 및 녹음기기, 772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를 포함함.
- 6) Balassa(1965)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지수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가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수출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t 시간의 특정국가 i 의 수출품목 j 상품의 현시비교우위는 다음과 같으며 w 는 세계를 의미.

$$RCA_{jt}^i = \frac{X_{jt}^i / \sum_{j=1}^n X_{jt}^i}{X_{jt}^w / \sum_{j=1}^n X_{jt}^w}$$

- 7)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사용하였으며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값이 1보다 크면 이는 세계 총수출에서 동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자국 수출중 동 품목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해당 국가의 특정상품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RCA 지수가 1보다 작으면 비교우위가 없는 것을 의미.

- 한국 철강⁸⁾제품은 세계 최고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승추세를 나타냄
- 한국 철강제품의 비교우위지수가 1993년 4.55를 기록하며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최근 일본, 중국과의 비교우위 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져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중국은 철강 제품의 현시비교우위가 2005년까지 1 이하로 비교우위가 없었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 1.62로 한국과 일본에 근접함으로써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은 새로운 설비도입과 외자유치를 통해 기술 향상과 경쟁력을 상승시켜 상대적으로 한국 철강 제품의 국제 경쟁력 하락을 주도함
- 한국 철강 제품의 세계 철강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은 하락추세를 보이며 2007년 5.49%까지 하락하였다가 2008년 7.40%로 반등함
- 2004년 이후 중국철강 제품의 세계 철강 수출 시장 점유율의 급등으로 2006년 이후로 중국의 세계 철강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한국을 추월하여 2008년 기준 16.50%를 기록

< 철강제품의 현시비교우위 > <철강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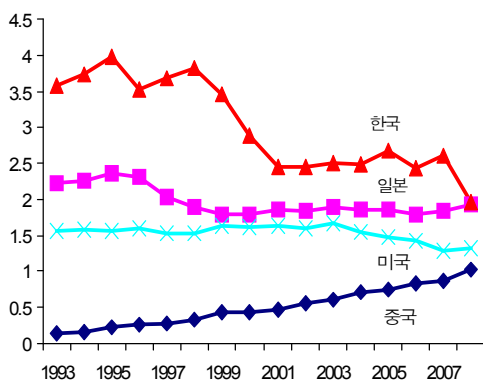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SICT revisio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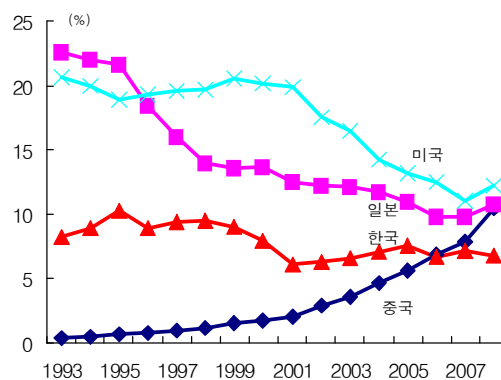
8) SITC revision 3의 673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철강제품) 품목을 분석하였고 이 제품은 2008년 수출 총액 상위 9위를 차지함.

- 한국 반도체⁹⁾ 제품은 최고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비교우위지수가 하락하여 우월한 경쟁력을 나타내던 반도체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국제품 점유율도 하락
 - 한국의 반도체 제품에 대해 비교우위가 일본, 미국, 중국에 비하여 매우 높았으나 점점 하락하여 최근 이들 국가들과의 비교우위 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짐
 - 한국의 비교우위가 1995년 최고점 3.97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에 감소하여 2008년에 1.97로 하락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중국의 반도체 제품은 2007년까지는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1.02를 기록하며 비교우위를 보이고 비교우위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일본과 미국도 반도체 분야의 비교우위가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추세에 있음
 - 반도체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한국은 1995년 10.3%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 하락하여 2008년 6.67%를 기록
 - 미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1993년 각각 20%, 22% 이상으로 반도체 분야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로 하락하여 2008년 기준 미국은 12.20%, 일본은 10.72%를 기록
 - 중국은 1993년 0.36%의 시장점유율로 매우 미미 하였으나 2008년 10.48%로 한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반도체의 현시비교우위 >



< 반도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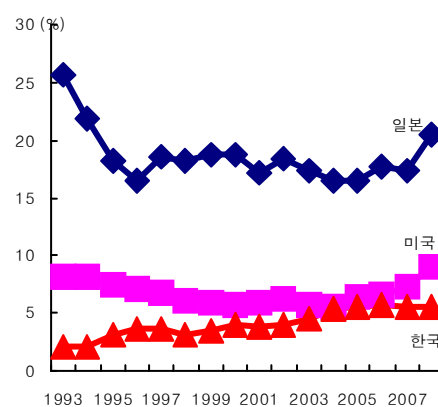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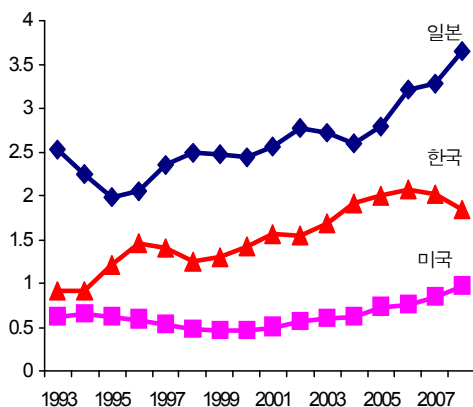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SICT revision 3).

9) SITC revision 3 776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과로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포함) 품목을 분석하였고 이 제품은 2008년 수출 총액 상위 5위를 차지. Asi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반도체를 ICT 품목으로 포함시키나 이 보고서에서는 따로 분류하여 분석.

- 한국 자동차¹⁰⁾ 제품의 비교우위지수가 200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어 갔으나 최근 감소세로 전환됨
 - 한국의 자동차 제품은 1995년 이후 비교우위제품으로 전환되어 비교우위지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최고 2.07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 하락세 로 전환하여 2008년 1.84를 나타냄
 - 반면, 일본의 비교우위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3.65로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고 비교우위의 급증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 미국의 자동차 제품은 비교우위지수가 1 이하로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최근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2008년 0.98를 기록
 - 자동차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한국은 1993년 2.10%를 나타냈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며 2006년 5.70%로 최고를 기록하였고 2008년 기준 5.54% 를 나타냄
 -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1993년 25.72%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에 감소 하여 2008년 기준 20.39%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 미국 자동차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1993년 8.10%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 감소하여 2000년 5.65%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증가추세로 전환하여 2008년 8.98%를 기록

< 자동차의 현시비교우위 >

< 자동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자료 : UN COMTRADE (SICT revisio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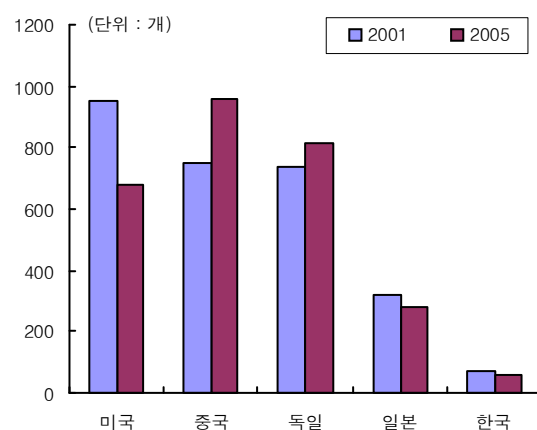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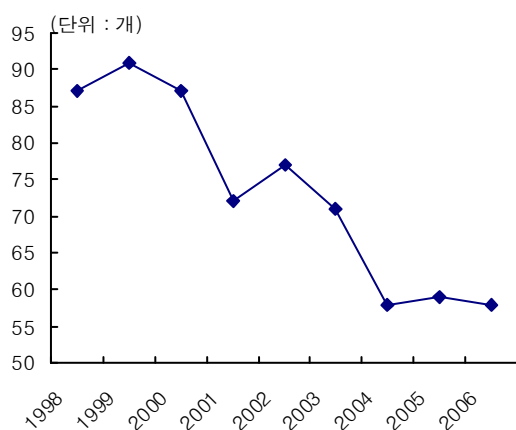
10) SITC revision 3 781제품을 분석하였고 이 제품은 2008년 수출 총액 상위 4위를 차지함

○ (세계 수출 상품 1위 품목 수 감소)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수가 감소하고 주요국과 비교해서 1위 품목수가 매우 적음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이 부족

- 세계 경쟁력 1위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세계 시장의 수출 경쟁력 1위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 한국의 1위 품목 수는 2006년 58개로 1999년의 91개에 비해 33개나 감소
 - 한국은 세계 수출 경쟁력 1위 품목이 1999년 91개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02년 77개, 2005년 59개, 2006년 58개로 줄어듦
 - 한국의 세계 1위 품목을 산업별로 비교해 보면 2006년에 철강, 선박 등 중화학공업제품이 38개로 2005년에 비해 3개 증가한 반면에, 섬유, 식물 등 경공업 제품은 19개로 4개 감소하였음

- 주요국의 세계 수출 경쟁력 1위 품목 수로 보면 중국은 2005년 기준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음
 - 중국은 2005년에 세계 1위 품목수 958개로 가장 높은 수출 경쟁력을 보였고 독일(815개), 미국(678개), 일본(318개), 한국(59개) 순으로 수출 경쟁력을 보임

<한국 세계수출 1위 품목수의 변화> <주요국의 세계수출 1위 품목수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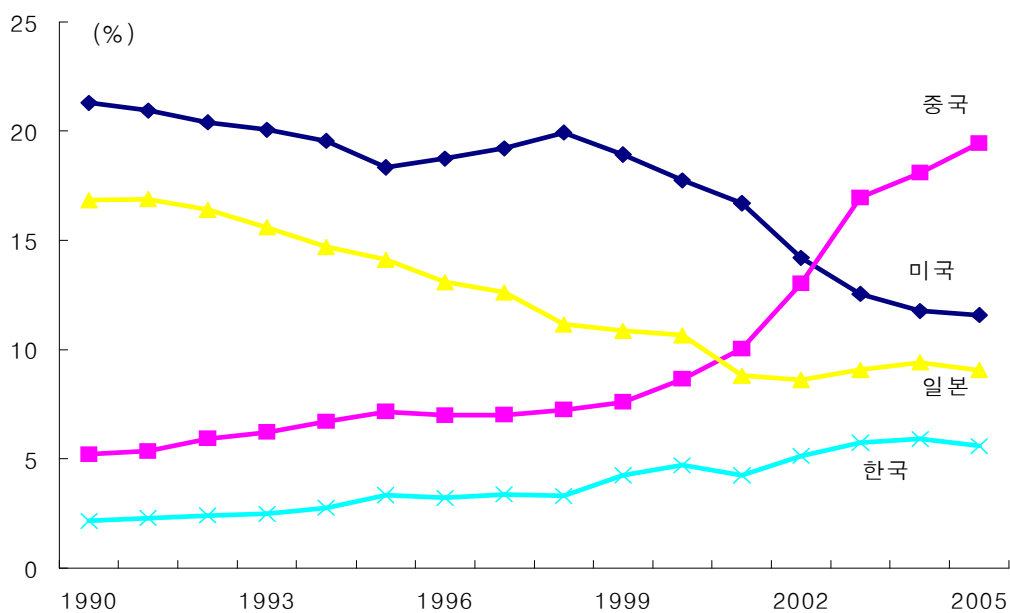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동향 분석실, 「2006년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과 우리나라의 현황조사」, 2008. 11.

11)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등 상품은 HS 6단위기준, 세계 수출총액이 50,000달러 이상인 품목 총 4,96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 (고기술 제조 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저조) 고기술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의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로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의 저조로 한국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정체
 - 우주항공, 통신장비, 사무기계 및 컴퓨터, 제약업, 과학기구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해 낮으며 5%대로 정체되어 있음
 - 한국의 고기술 제조 수출제품의 총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은 정체되어 있고 이는 한국의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이 미미함을 의미
 - 미국의 고기술 제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98년에 20%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여 2005년 11.59%로 하락
 - 일본의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인 감소로 2005년 9.05%로 하락
 - 반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어 고기술 제조 산업분야의 세계 총 수출 시장에서 수출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이후에 급등하여 20%에 근접

<고부가가치 산업 세계 수출 시장에서 각 나라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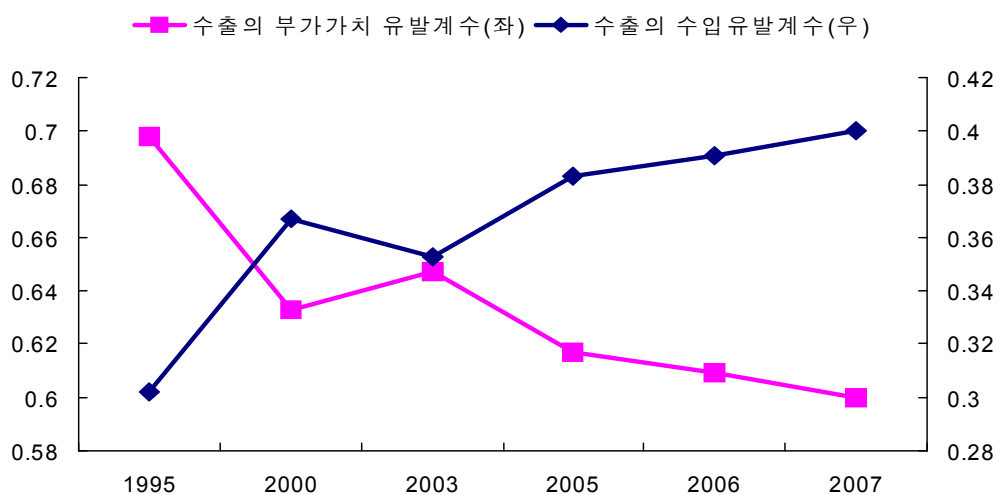


자료 : 1) National Science Board,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2) World Industry Service database.

○ (수입 의존적 수출품 생산 구조)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¹²⁾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가 더 악화됨

-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증가하여 수출의 수입 유발계수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하락
 - 수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1995년 0.69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0.6으로 하락
 - 이는 최종 수출품 생산에 들어가는 관련부품 등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의 수입유발이 높기 때문이며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2003년 이후 증가추세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중간재 및 관련주요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음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및 중간재가 더 빨리 증가하여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 심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2009. 4.

12) 부가가치 유발계수 + 수입유발계수 ≡ 1의 항등식에 따라 수입유발계수가 커질수록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작아짐.

III. 개선 과제

○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이종 산업간의 결합을 활용한 융합기술 및 융합녹색 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ICT,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한국 수출주력 품목 산업과 타 산업영역의 결합기술 개발을 통한 신기술 융합 상품 개발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주력 수출산업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녹색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기존산업의 친환경화

○ 수출 신상품 개발

- 성장잠재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신상품을 개발하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품목 개발
 -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수출 상품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잠재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
 -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환경 및 기술규제의 수출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저탄소 배출 관련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 신상품 개발
 - 신성장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및 부품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수출 품목 개발 확대

○ 수출 지역 다변화

-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 세계 경기침체 등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 실적 급락의 리스크를 완화
 - 고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동, 남미, 인도 등의 신흥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하여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수출 전략 마련
 - 또한 이들 신흥국으로 CDM 수출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수출산업 확대를 추진해야 하여 수출 다변화 추구

○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 개선

-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수출품의 관련주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국산화 비율을 높여 수입 의존적 수출구조를 개선
- 저탄소 시대 하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기술 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및 친환경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 성공적인 G-20 회의 개최와 적극적인 코페하젠 기후변화협약 회의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국가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 기업,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김민정 연구위원 (kimmj@hri.co.kr, 3669-4457)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7	2.1	0.4	-0.7	1.5	-2.7	-5.4	-6.4	-0.7	-2.6
EU	3.0	2.7	0.7	0.7	-0.3	-0.3	-1.8	-2.5	-0.1	-4.8
일본	2.0	2.3	-0.7	4.0	-4.3	-5.1	-12.8	-12.4	2.3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2	-3.0

주 1) : 2008년, 2009년 2/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말	10월 16일	10월 23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2.66	3.54	3.30	3.42	3.42	0%p
	엔/달러	90.80	98.98	96.33	89.91	91.09	91.36	0.275¥
	달러/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4913	1.5036	0.0123\$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9,996	10,081	85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10,258	10,267	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3.94	4.16	4.39	4.56	4.58	0.02%p
	원/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64.5	1,181.5	17.0원
	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640.4	1,640.2	-0.2p

주 : 10월 23일 해외 지표는 전일(10월 22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말	10월 16일	10월 23일	
국제 유가	WTI	44.61	49.65	69.08	70.28	78.69	80.84	2.15\$
	Dubai	36.45	46.80	71.85	65.33	75.30	77.80	2.50\$
sCRB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76.10	282.54	6.4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